

차세대 통합 구매시스템 재구축

업종 정유·석유화학 제품 생산 및 공급
임직원 수 약 2,100명
매출액 30조 4,686억 원(2024년 기준)

Customer Comments

AI를 활용한 자재 데이터 관리를 통해
불용 자재 처리 비율이 기존 대비 25% 향상되었습니다.

HD현대오일뱅크 구매2팀 이강민 책임매니저

Project Overview

Challenges

계열사 간 자재 코드 중복 생성으로 인해 구매 데이터의 정확한 관리 어려움

기존 구매 시스템 노후화로
 잦은 지연 및 오류 발생

계열사 간 산발적인
구매 요청 대응 한계

중복 자재 코드로 인한
구매 데이터 정합성 저하

Solutions

전사 통합 구매 프로세스 및 AI 기반 아이템 마스터 관리 체계 구축

단일 시스템 기반
통합 구매 프로세스 재설계

아이템 별 통합 구매 및
계열사 자동 발주 구현

중복 자재 분류 및
데이터 품질 관리 업무 자동화

Results

AI 활용으로 자재 관리 효율성 증가, 불용 자재 처리 비율 25% 이상 향상

구매 업무 온라인 전환 및
통합 프로세스 구축으로 편의성 개선

계열사 간 협업 강화,
전사 구매 원가 절감 실현

아이템 마스터 관리 업무 효율성 제고,
불용 자재 처리 비율 25% 향상

도입 소프트웨어 Coverage

협력사 등록/평가

구매요청

전자입찰

전자계약

발주관리

검수/입고

수입관리

분석&리포트

검색엔진

Workplace

시스템 공통

AI 기반 품목 유사도 분석 및 품목 기준정보 자동 관리

Challenges

계열사 간 자재 코드 중복 생성으로 인해 구매 데이터의 정확한 관리 어려움

HD현대오일뱅크는 기존에 구축한 통합 구매 시스템 OPS(Oilbank Procurement System)의 시스템 노후화로 인해 잦은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하면서 일부 업무는 전화, 이메일 등 오프라인 기반으로 진행해야 했고, 이에 따라 구매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존재했다.

또한, 사업 확대에 따라 계열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면서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구매 요청에 보다 빠르게 대응하고,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특히 자재 코드가 계열사마다 중복으로 생성되다 보니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이슈가 발생했고, 정확하고 효율적인 아이템 마스터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했다.

Our Solution

전사 통합 구매 프로세스 및 AI 기반 아이템 마스터 관리 체계 구축

엠로는 전문적인 PI(Process Innovation) 컨설팅을 통해 구매 프로세스를 재설계하고 다양한 기능과 치신 트렌드를 반영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HD현대오일뱅크의 구매 업무에 특화된 새로운 통합 구매 시스템 'HOPS(Hyundai Oilbank Procurement System)'을 구축했다.

기존에 이메일, 전화 등 오프라인 기반으로 진행하던 구매 업무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고 타 시스템에 산발적으로 분산되었던 업무도 단일 시스템으로 통합해 구매 요청부터 견적, 계약/발주, 입고/정산까지 구매 업무 전반을 아우르는 엔드-투-엔드(end-to-end) 프로세스를 구현했다.

특히, 엠로가 자체 개발한 AI 기반 유사도 분석 기술을 통해 구매 시스템 내 존재하는 방대한 양의 품목 데이터 간 유사도를 AI가 자동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중복되거나 유사한 데이터를 걸러내 구매 업무의 기준이 되는 아이템 마스터(Item Master)의 데이터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

Results

AI 활용으로 자재 관리 효율성 증가, 불용 자재 처리 비율 25% 이상 향상

새로운 통합 구매 시스템 HOPS에서 HD현대오일뱅크와 4개 계열사(HD현대코스모, HD현대셀베이스오일, HD현대케미칼, HD현대오씨아이)별 구매요청을 접수하고, 이를 구매 아이템 유형별로 통합해 견적 및 업체 선정, 품의까지 일괄적으로 진행한 뒤 계열사별로 자동 발주가 이뤄지도록 하는 통합 구매 프로세스를 마련함으로써 전사 차원의 구매 업무 간소화, 협업 강화, 구매 원가 절감 등의 효과를 얻게 됐다.

또한, 기존에 수작업으로 진행하던 자재 관리 업무를 AI 기반으로 자동화해 중복 자재 분류 및 아이템 마스터 품질 관리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과 리소스를 절감하고 정확도를 높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불용자재 처리 비율이 기존보다 약 25% 이상 향상되는 등 재고 관리 효율성도 높아졌다.

이 외에도 크롤링(crawling) 기술을 활용해 시장 정보를 자동으로 수집 및 분석하고 DB화함으로써 구매 업무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이를 활용해 보다 창의적인 구매 업무 수행이 가능해 졌다.